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0년 1월 19일 (셋째 주일)

성경본문 : 요1장 1-8절

설교제목 : “거듭남”

구원의 기초가 회개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방법은 오직 믿음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믿음이 생겨나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니고데모란 인물입니다.(요3:1) 니고데모란 이름의 뜻은 백성의 정복자입니다. 그의 이름에는 전쟁 영웅이란 가문의 역사성이 고스란히 니고데모의 이름에 담겨졌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니고데모가 유대의 최고의 권력기구였던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다는 사실은 그가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니고데모는 명예와 권력을 함께 쥐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란 뜻이 분리하다는 뜻인데 그들의 이름처럼 이들은 세속과 구별하여 철저하게 율법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고 했던 경건주의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니고데모는 종교적 열심에서도 누구보다 경건했던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요3:2) 2절의 내용을 놓고 요즘 전통적인 해석과 새로운 해석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해석은 니고데모는 당대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성이었으나, 진리에 목이 마르고, 영적으로 허기를 채울 길이 없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한밤 중에 예수님을 찾았던 인물이라고 이해합니다. 따라서 2절의 니고데모의 예수님에 대한 극찬은 예수님에게 호의적인 마음의 표현이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1세기 당시는 유대 사회에서 이런 과찬에 가까운 인사말은 뭔가 논쟁의 포문을 열 때, 논쟁에 불을 붙이려 할 때, 상대방을 잔뜩 치켜 세우는 과한 인사법을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통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어떤 해석을 따를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결과래서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요2:23)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요2:24) ‘의탁하다’는 헬라어가 ‘피스투오’인데 ‘믿다’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초자연적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여 왔는데, 예수님이 그러한 믿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요2:24)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본문에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힌트가 있습니다. 우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라는 표현입니다.(요3:2) 요한복음에서 밤이란 단순한 물리적 시간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표현법으로 영적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참고 요13:30) 니고데모가 밤에 왔다는 표현은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가 어둡고, 빛되신 예수님이 앞에 계시지만, 그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힌트는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을 찾아온 동기가 표적을 보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니고데모의 모습을 전 문맥인 요2:23-24의 말씀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 앞에 나왔으나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믿음을 믿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결국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 호의적으로 왔는지, 아니면 한번 논쟁해 보자는 의도로 왔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문의 문맥이 드러내고 싶은 것은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입니다. 니고데모는 여타 다른 유대인들처럼 캄캄한 영적 어두움 즉 완전한 영적무지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거나 기적을 보면 믿음이 생

겨날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생각을 부정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3절)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즉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야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나다’는 헬라어 ‘아노텐’은 시간적 의미로 ‘다시 나다’ 위치적 의미로 ‘위로부터 나다’는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듭나다라는 의미를 위치적 의미인 위로부터 나다는 의미로 사용하셨습니다. 거듭남의 역사가 위로부터 난다는 것은 거듭남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거듭나다는 시간적 의미로 생각했습니다.(4절) 그러자 예수님은 거듭난다는 것이 시간적 의미가 아님을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5절). 성령의 역사가 씻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중생이라고 표현하는데, 거듭남은 중생의 씻음의 역사입니다.(딤후3:5) 거듭남의 사건은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케 하시는 사건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듭남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됩니까? 전적으로 거듭남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어둠에서 빛으로 여시고, 죽은 영적 생명을 살게 하셔서, 믿음을 갖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거듭나게 하심의 역사가 있었기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만일 거듭남, 중생의 역사가 없었다면 결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8절을 봅시다. 성령으로 나는 거듭남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8절) 거듭남의 역사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역사입니다. 거듭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엡2:8) 우리가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즉 거듭남의 역사를 통해서 생겨난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지는 믿음은 거듭남의 역사로 주어집니다.

※.말씀 나누어보기

- 1) 니고데모가 어떤 인물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 2) 거듭남, 즉 중생의 씻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말씀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과정을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